

# 中, 한국 등 페놀 반덤핑 조사... 무역전쟁 불똥

### “미국 관세폭탄 맞볼 성격” 일본·유럽연합·태국도 대상 콩·항공기도 보복관세 예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페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공고를 통해 중국 석유전연가스, 장춘화공 등 자국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미일 3국 이외에 유

럽연합(EU), 태국에서 수입되는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공고를 통해 지난 2월 중국 업체들로부터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은 뒤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반덤핑 조례에 따라 26일부터 반덤핑 조사를 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들은 상무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미국과 한국 등에서 수입된 페놀이 중국 시장에서 정상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서 판매돼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이익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중국의 수입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최근 무역 마찰을 겪는 미국을 주된 타겟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한국과 일본, EU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번 중국 상무부의 발표는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한 반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최대 600억 달러(약 64조8000억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중국이

곧바로 30억 달러(3조2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둔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맞대응한 데 이어 페놀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아켈레스건인 콩, 항공기 등을 옥죄기에 앞서 미국을 포함한 페놀 수출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초전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또한 미국과 무역전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미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미국을 자극하면서 적정 수준의 타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중국 허난성 조조 무덤 확인 두 부인 유해도 함께 발견

중국 허난(河南)성의 평원지대에서 발견된 고분이 삼국지 위나라의 시조인 조조(曹操·155~220)의 묘로 최종 확인됐다. 26일 베이징정년보에 따르면 허난성 문화재고고연구원은 허난성 안양현 안평(安平)향 시가오쉐(西高穴)촌에 위치한 동한(東漢)시대 무덤군에서 조조와 조조 부인 2명의 무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난성은 지난 2009년 12월 이 지역 무덤군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조조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릉(高陵)을 발견, 연구 분석 작업을 진행해왔다. 발굴팀은 고릉 주변의 분토 기반, 천도통로, 동부 및 남부 건축물 등을 포함한 주요 구조를 밝혀내고 조조와 만아들 조양(曹昂)의 모친 류(劉)씨, 조비(曹氏), 조식(曹植)의 모친 변(卞)씨가 매장돼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묘원 안에서는 남성 1명, 여성 2명 등 3구의 유해가 발견됐는데 이중 남성 유해는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60세 전후의 나이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무덤 구조와 소장품, 역사 기록 등을 분석해 이 남성이 조조라고 결론을 내렸다. 삼국지 위서에 조조의 정실부인 변씨가 70세 전후에 숨진 뒤 조조 묘에 합장됐다는 기록에 따라 여성 노인 유해는 변씨인 것으로, 젊은 여성 유해는 일찍 숨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첫째 부인 류씨인 것으로 추정됐다.



### 트럼프와 성관계설 포르노 배우 “협박당했다”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성관계설을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배우가 25일(현지시간) 공중파 TV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관계와 협박을 당한 일을 자세히 폭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스토미 다니얼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스테파니 클리포드(39·왼쪽)는 이날 방영된 CBS ‘60분’에 출연해 지난 2011년 라스베이거스의 한 주차장에서 협박당한 일화를 털어놓으며 “아기였던 딸과 함께 있는데 한 남성이 내게 다가와 ‘트럼프를 내버려둬라. 그 이야기는 잊어버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아베가 거짓말”... 사학비리 진실공방

일본 정국을 달구고 있는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특혜매각 의혹이 아베 신조(사진) 총리 측과 전 학원 이사장 간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오사카구치소에 구속된 가고이케 야스노리 전 모리토모학원 이사장은 이날 “원래는 아베 총리를 매우 좋아했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학원에 대한 국유지 특혜매각 의혹과 관련한 재무성의 문서조작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오사카구치소에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아베 총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나”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런 발언은 아베 총리가 자신과 부인 아키에 여사가 재무성의 국유지 특혜매각에 알지도 못했고, 그런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 “거짓말”이라며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가고이케 전 이사장은 또 의원들에게 “지난해 2월 국유지 특혜매각 문제가 발각된 이후 재무성 직원으로부터 ‘몸을 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3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도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제청 장관의 명령이라면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10일간 숨어있으라”고 고문번호사를 통해 전달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사가와 이재국장은 국회 답변에서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가고이케 전 이사장은 이날 의원들에게 “지시를 듣지 않은 쪽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7월 오사카지검 특수부에 체포된 이후 계속 구속돼 있는데 대해서는 “국책구속인 셈이다. 빨리 나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당나라 재상 한휴

한휴(韓休 673-740)는 장안 출신으로 자는 양사다. 현종 때의 재상으로 시호는 문충이다. 문사에 뛰어나 과거시험인 현량방정과에 천거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현종이 태자로 있을 때 국정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아 치국 대책을 올렸다. 이 공으로 조동희와 함께 을과(乙科)에 급제했다. 이후 좌보림, 예부시랑, 지제고, 상서우승을 거쳤다. 724년 산둥 지방에 가뭄이 들자 예부시랑 겸 지제고인 한휴를 자사로 발탁해 대처토록 했다. 그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정직했다. 그러나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말하기를 좋아했다. 낙양과 장안 중간에 있는 하남성 귀주 자사로 있었는데 황제가 동도인 낙양가

그는 “이미옥은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지위가 낮은 관계로 엄한 벌을 받게 된 반면 지금 조정에는 큰 간신배가 있지만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것은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현종이 이 제안을 거부하자 재차 “폐하께서 간신배를 내치지 않으신다면 신은 감히 이미옥을 유배 보내라는 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황제가 뜻을 꺾었다. 그는 황제의 공적인 일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간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황제는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재상의 눈치를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황제는 궁중에서 연회를 열거나 후원을 산책하거나 사냥을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잘못이나 자질이 생기면 번


### 사사건건 현종에 조언한 원칙주의자

는 길목에 있어 세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는 세부담을 다른 지방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상인 장영은 이를 논박하기를 “꼭주만 홀로 세부담을 면해주면 다른 주에서 그 부담을 떠맡아야 한다. 이는 결국 자사가 사사로이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다.” 한휴가 후회할리가 없었다. 그는 “자사가 백성의 피해를 돌봐줄 수 없다면 어떻게 정사를 돌볼 수 있겠는가? 이일로 인해 뒷분의 노여움을 사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응대했다. 그의 단호한 주장에 장영은 부득이 자신의 주장을 접었다. 개원 21년(733) 배양정이 물리나자 수석재상 소승에게 후임자를 추천하라고 말했다. 소승이 우산기상사 왕구를 추천하려 하자 왕구는 한사코 우승 한휴에게 양보했다. 결국 황문시랑·동평장사로 발탁되어 차석재상이 되었다. 그는 사람됨이 강직하고 단호해 개인의 이익과 영달에 관심이 없었다. 소승은 그가 평소 사람들과 잘 지내므로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상이 되자 원칙을 지키고 아무렇지 않아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었다. 재상을 역임한 원로 승경이 이를 보고 “뜻밖에 한휴가 마침내 이와 같이 할 수 있구나”라고 탄탄했다. 하급관리 이미옥이 경미한 죄를 짓자 현종이 귀양을 보내도록 명하였다.

번이 측근들에게 물었다. “한휴가 아닌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의 상소가 도착했다. 황제는 일찍이 거울을 보면서 즐거움 기색이 없었다. 좌우의 측근들이 말하기를 “한휴가 재상이 된 후에 황제께서는 이전보다 유달리 야위었는데 왜 그를 자르지 않습니까?” 현종이 한탄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모습이 비록 야위었지만 천하의 백성들은 반드시 살아 찢을 것이다. 한휴는 항상 힘써 다루지만, 그가 퇴진한 후에 나는 누우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가 그를 기용한 것은 사직을 위한 것일 따름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원칙적이 황제의 뜻만 따르는 선임재상 소승이 맘에 들지 않아 자주 황제앞에서 논쟁하였다. 승경은 이런 그를 두고 “인자의 용기”라고 평가하였다. 733년 소승이 사직을 청하자 황제는 “집이 아직 경을 싫어하지 않는 데 어찌 들떠 떠나려고 하오?” 소승이 답하기를 “두터운 은혜를 입어 재상이 되어 부귀가 자취하였음에도 황제께서 아직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신을 싫어하신다면 신의 머리나 목을 보존할 수 없는데 어찌 편안히 물리나겠습니까?” 결국 현종은 소승을 파직해 좌승상으로 삼고 한휴도 파직해 공부상서로 삼았다. 배요경과 장구령이 그 뒤를 이었다. 후일 그는 정직을 숭상한 재상으로 평가받았다.



중국 허난성에서 발견된 조조 무덤. (해파리망 캡처)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 건물 : 1,477,64㎡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 건물 : 1,350,03㎡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 건물 : 728,97㎡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 건물 :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 건물 : 265,58㎡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 건물 :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 건물 : 3,793㎡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복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 건물 : 1,458,86㎡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 596,70㎡ 건물 : 948,58㎡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질병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 건물 : 2,143,08㎡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 건물 : 3,568,32㎡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 건물 : 3,998,33㎡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 340,4㎡ 건물 : 510,09㎡ 감평가 : 721,968,950원 최저가 :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 27,403㎡ 건물 : 1,454,36㎡ 감평가 : 1,706,257,600원 최저가 :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 2,329㎡ 건물 : 844,08㎡ 감평가 : 1,024,812,000원 최저가 :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 3,319㎡ 건물 : 2,480,7㎡ 감평가 : 3,024,288,500원 최저가 :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 3,673㎡ 건물 : 3,037,52㎡ 감평가 : 3,744,229,960원 최저가 :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